

토끼와 거북

남해 용왕 광리왕은 바닷속 깊은 곳에 영덕전이라는 휘황찬란한 새 용궁을 짓고 큰 잔치를 열었다. 동서남북 네 바다에서 나는 온갖 진귀한 해산물로 차린 음식에 신선들이 마신다는 술을 구해다가 마시며 마음껏 즐겼다.

그러나 무엇이든 지나치면 탈이 나는 법, 용왕은 그만 덜컥 병이 나서 드러누워 버렸다. 크게 당황한 신하들은 약이란 약은 다 써 보고 용하다는 의원까지 다 불러 보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용왕은 이제 꼼짝 없이 죽는구나 하며 마지막으로 하늘에 빌고 또 빌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늘에서 오색 구름이 내려와 용궁을 뒤덮더니, 도포 차림에 흰 수염을 배 위까지 드리우고 깃털 부채를 든 한 신선이 나타났다. 신선은 용왕에게 육지에 사는 토끼의 간을 구해서 따듯할 때 먹으면 낫는다고 했다.

평생 바닷속에서만 살아온 용왕은 토끼가 어떻게 생긴 동물인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용왕의 답답한 마음을 풀어 주기라도 하듯 신선은 토끼에 대해 말로 아주 자세히 설명해 주고 홀연히 사라졌다. 용왕은 신하를 불러 토끼를 잡아 오라 명했다.

그러나 아무도 나서는 신하가 없자, 그동안 멸시를 받던 별주부 거북이가 나섰다. 그리고 토끼를 그려 주면 잡아 오겠다면서 자신의 충성심을 과시했다. 용왕은 별주부의 요구대로 비서인 전복에게 토끼의 생김새를 설명하게 하고 화가에게 토끼의 그림을 그리라 명했다. 그리고 병만 낫게 해 준다면 자자손손 잘 살게 해 주겠다 약속했다.

주부는 토끼 그림을 들고 친척들의 배웅을 받으면서 물으로 떠났다. 육지에 오른 별주부는 봄날의 정취에 정신을 잃을 지경이었다. 난생 처음 구경하는 신비로운 풍경에 정신이 혼미하던 주부는 마음을 가다듬고 다시 길을 떠났다. 그러다 별주부와 한 핏줄이 분명한 자라 남생이 '남성이'를 만나 토끼를 만날 수 있는 길을 찾게 되었다.

보름날 열리는 산속 회의에서 별주부는 마침내 토끼를 보고, 용궁에서 화가가 그려 준 그림을 품에서 꺼내 확인하고 또 확인했다. 말로만 듣던 산속 토끼가 맞았다. 반가운 마음에 얼른 큰 소리로 토끼를 불러 세웠다.

순간 토끼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생전 처음 들어 본 점잖은 소리였던 것이다. 토끼가 별주부 곁으로 오자, 거북이는 토끼에게 자신이 모자라 용왕을 잘 보필하지 못했기에 지혜로운 신하를 찾아 온 세상을 돌아다닌다고 자신을 소개했다.

그 말에 관심을 보이는 토끼에게 거북이는 얼른 토끼야말로 지혜로운 자라며, 토끼의 눈이 맑은 만큼 마음속도 밝아서 하늘의 이치를 모조리 꿰뚫고 있으니 얼른 자신을 따라 용궁으로 가자고 꼬였다.

토끼는 용궁에 글 잘하는 신하도 없다고 하니 출세는 떼어 놓은 당상인 듯했으나 망설이며 못 가겠다고 하자, 별주부는 살짝 당황하여 이유를 물었다. 그러자 토끼는 주부가 산속을 알면 얼마나 알까 싶어 거짓을 이야기했다.

거북이는 허풍을 떠는 토끼가 꽤 씹하여 단숨에 산속 세계의 현실을 이야기하여 토끼를 쥐구멍으로 몰아넣고, 의심이 눈을 가리면 아무리 좋은 것도 보이지 않으니, 그만 가야겠다고 했다.

결국 토끼는 용궁으로 가겠다고 결심하고 거북이를 따라 길을 떠났다. 마침내 바닷가에 도착한 주부는 망설이는 토끼 뒷다리를 덥석 물어 등에 태우고 헤엄쳐 용궁으로 갔다.

별주부가 없는 틈을 타 수궁문을 지키는 군사들을 살살 꼬여 상황을 들은 토끼는 눈앞이 캄캄하고 식은땀이 흘렀다. 용왕 앞으로 끌려 나간 토끼는 자신의 신세가 너무나도 처량하고 서글퍼서 절로 한숨이 새어 나왔다.

용왕이 토끼에게 빨리 배를 내밀어 칼을 받으라고 명하자, 토끼가 꼬를 내어 물에다 간을 꺼내 놓고 와서 없다고 하며, 자신이 물으로 나가 방자산 최고봉 늙은 소나무에 매달린 다른 토끼의 간까지 가져다 주겠다고 했다. 놀란 별주부는 토끼의 간이 들락날락한다는 소리를 들어 본 적이 없으니 일단 배를 갈라 보자고 했다.

하지만 토끼의 말에 이미 넘어간 용왕은 토끼에게 큰 잔치를 베풀어 주었다. 바닷속 구경을 실컷 하고 물에 도착한 토끼는 바다가 안 보이는 높은 언덕에 도착하여 주부가 오기를 기다렸다가, 거북이에게 어떤 동물이 간을 빼놓고 다닐 수 있냐며, 한바탕 혼을 내고는 토끼 똥이 몸에 좋으니 그거라도 들고 돌아가라고 했다. 하는 수 없이 별주부는 울며 겨자 먹기로 토끼 똥을 가지고 용궁으로 돌아간다.

용왕은 주부가 들고 온 토끼 똥을 먹고 다시 건강해져서 삼천 살을 넘게 살았다고 한다.